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6520 Linden Ave. N. Seattle WA 98133 (206) 546-6746
Beom Hoe Koo, Publisher
Chong Sye Kwak, Editor
Printed By Pro-Litho Inc.

VOL 1 NO. 7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SEPTEMBER, 1974

광복절 기념행사

씨애틀에서 기념 야유회

한인회 주최 8.15 광복절 기념 야유회가 지난 8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씨애틀 시내에 있는 린컨 공원에서 있었는데 수많은 교포와 그친지들이 참석하여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스포케인에서 "한국의 날" 기념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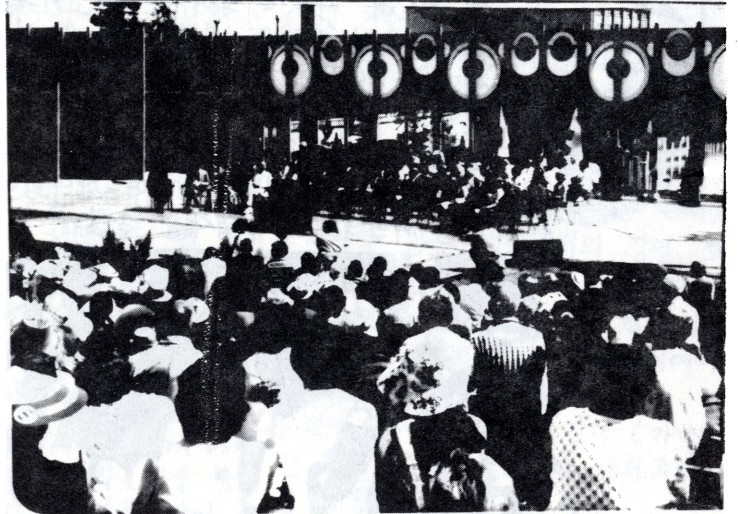
만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스포케인에서는 엑스포 당국이 8월 15일을 "한국의 날"로 정하고 이날 오전 10시30분에 International Amphitheater'에서 한인교포를 비롯한 수많은 관람객의 관심속에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8월 1일은 정명훈군의 날

씨애틀시에서 제정코 환영회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코프스키 국제 음악제 피아노 부문에서 영광의 2위를 차지한 정명훈군이 제 2의 고향인 씨애틀에 돌아온 날 8월 1일을 씨애틀시에서는 Billy Chung Day로 정하고 시장실에서 환영회를 가졌다.

이날 시장을 대리학한 Sam Smith 시의회 의장 및 관계인사들의 영접을 받았고 이어 오찬회에 참석한 한인회 임원 및 교포유지들 과도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한국의 날 기념식 광경

개천절 기념식 개최 및

임시총회 소집 공고

단군 개국 4306주년을 맞이하여 한인회에서는 기념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코저 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식이 끝난후에는 회칙 제 9조 1항에 의거 한인회 임시총회를 소집하오니 정회원은 물론 일반회원도 꼭 참석하셔서 보다 나은 내일의 한인회를 위하여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날자 : 1974년 10월 5일 (토요일)

시간 : 저녁 7시 30분

장소 : 와싱턴 대학교 HUB 3층

순서 : 1. 개천절 기념식

2. 임시총회

토의안건 : 회칙 개정, 회관설치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

3. 다과회

1974년 9월 12일

한인회 회장 구 범 회



사진은 좌로부터 Dick Matheson 명예영사, Sam Smith 시의회 의장, 정 명훈군, 구 범회 한인회 회장

각 곳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



◎ 한인회에서 기념 야유회.
 지난 8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링컨 공원에서 제 29회 8·15 광복절 기념야유회를 한인회 주최로 거행하였다. 한인회 부인들이 손수 마련한 푸짐한 음식에 절드려 지글 2 익어가는 불고기를 먹어 가며 정다운 대화를 나누기도하고 재미있는 오락경기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고국에서 전해 온 대통령 저격사건과 육영수여사사망의 비보로 인하여 한인회에서는 기념식 및 기라행사를 즐겼다.



◎ 스포케인에서 한국의 날 기념식.

Expo '74가 열리고 있는 스포케인 박람회 당국은 8월 15일을 "Korean National Day"로 정하고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International Amphitheater에서 많은 교포 및 관람객의 관심속에 Expo Band의 주악으로 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각국 귀빈들과 한국측에서는 안광호 무역진흥공사 사장, 윤세영 주미대사관공사, 윤찬 상항총영사 및 실원철 박람회 한국관 소장등이 참석하였으며 소니식여사와 신영권, 윤일봉 배우들의 열광도 보였다.
 특히 전날 한국에서 발생한 대통령저격사건 및 육영수여사 사망의 비보로 조기를 계양한 가운데 모두 숙연하게 식을 마쳤다.
 이날 오후 8시에는 Opera House에서 「리틀 에젤스」의 공연이 있었는데 입추의 여지없는 심황을 이루었고 "원티플"을 연발하는 감격의 여운이 스포케인 하늘을 메아리 쳤다.



◎ 한인회에서 국기마련

오랫동안 국기 하나없이 지내온 한인회에서는 행사 때마다 개인소장의 태극기와 성조기를 빌려 사용하여 왔었는데 이소식을 듣고 서울의 구 만회식(구범회 한인회장 백씨)는 금실 수 놓은 태극기와 성조기 한 쌍을 특별히 주문하여 만들어서 광복절 기념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손수 들고와 한인회에 기증하였다.
 기증받은 국기는 받침대와 보관케이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어느 행사에나 사용하기 편리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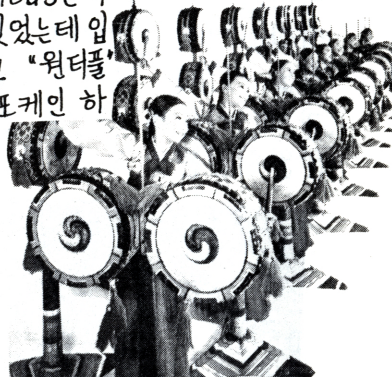
* 8·15 경축 피크닉에 음식을 맡아 도와 주신분들을 고마운 뜻에서 지상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경칭 약)

- | | | |
|---------------|------|------|
| 전 계상 | 이 창희 | 이 현기 |
| 한 만섭 | 김 덕환 | 박 암 |
| 안 병영 | 김 현중 | 송 중래 |
| 황 수철 | 김 현길 | 조 영 |
| 구 범회 | 이 선복 | 이 순모 |
| James Kim | 남 성삼 | 곽 종세 |
| Mrs. McCauley | 안 병용 | |



◎ 학생회에서는 기념 심포지움.

와싱턴 대학교의 한국 유학생회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 오후 7시 반부터 교내 HUB 309호실에서 많은 일반교포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날 간단한 기념식에 이어 「한국의 역사 발전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란 주제로 열린 토의를 나눈 연사는 최 의환 박사, 김원근 교수, 박 건홍선생, 이수길선생 등이다.



75년도 한인회 정, 부회장 및 이사선거 11월 9일 정기총회에서.

현 회칙 제 2장 제 9조에 의하면 둘째 토요일에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선거가 있게 되는데 금년에는 11월 9일이 총회일이 된다.
 선거규정에 의하면 9월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제척을 정하고 9월 30일부터 입후보자의 지원서나 추천서 접수를 시작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5일(선거일 전 15일) 이전에 입후보자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안 병영씨 E.O.C. 이사로.

King County에 재직하고 있는 안 병영씨는 8월부터 EOC (Employment Opportunities Center)의 이사로 파입됨에 따라 이 현기씨에 이어 두 번째로 Board Member가 되었다.
 EOC는 Asian-American (한국계, 중국계, 일본계, 필리핀계, 사모아계)을 위한 직업알선과 또 직업을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하며 씨앤티시 당국과 와싱턴주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다. 현재 김 홍기씨가 한인담당담당역 (Korean Counselor)을 맡고 있는데 사무실 주소는 4726 Rainier Ave. So. Seattle, Wa. 전화 725-8200이다.

제 1회 장기, 바둑, 탁구대회 개최 공고.

제 1회 한인회주최 친선 장기, 바둑, 탁구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많은 성원과 참가바랍니다.
 우승자에게는 종목별로 트로피를 증정하며 참가자적은 와싱턴주에 거주하는 교포, 학생을 막론하고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종목별 책임자에게 9월 30일까지 등록 (등록비 1불) 해 주시기 바랍니다. x x x x

종 목	책 임 자	전화
장기(한국)	남 성삼	623-9740
" (서양)	이 선복	632-5260
바 둑	김 재호	523-9456
탁 구	이 순모	485-4415

* 시일, 장소 및 경기방법은 개별통지, 추후발표 < 각 책임자 결정 >

Seafair 문화제에 참석

Seattle Chinatown Chamber of Commerce 와 International District Economic Association이 주최한 Seattle Seafair Chinatown Mite Cultural Show가 지난 8월 1일 저녁 8시부터 Chinatown Park에서 있었는데 한인회에서는 배수완씨가 리드하는 「아리랑밴드」와 한국민요 및 고전무용을 가지고 참가하여 수많은 관중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이 문화제를 성공리에 마친 주최자측에서는 한인회에 감사장을 보내고 한인회의 공헌을 치하하면서 내년에 꼭 참석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한미 과학 기술 협력 상위단 씨앤티 방문.

9월 6일 한미과학기술협력상설위원회(Korea-U.S. Joint Continuing Committee of Science Cooperation) 일행 7명(단장 최 상업 서강대 부총장)이 제 2차 한미과학협의회의 참석차 와싱턴 D.C에 가는 길에 씨앤티를 방문했다.
 이날 저녁 8시에 와싱턴대학 구내 Bagley Hall 405호실에서 한인회, 학생회 및 재미 한인과학 기술자협회 북서지부 공동주최로 좌담을 가졌다.
 이들 일행은 3박 4일 동안 체재중 정 부기관 및 와싱턴대학에서의 강연, 좌담회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9월 9일 씨앤티를 떠났는데 일행중 이 한빈 승전대 총장은 한 만섭박사와 동서간이어서 기쁜 감회가 한결 더했다.
 7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권 원기 과학기술처 계획국장
 김 히철 서울공대 학장
 안 세희 연세대학교 대학원장
 이 한빈 승전대학교 총장
 조 순환 과학원 원장
 최 상업 서강대학교 부총장
 한 상준 과학기술연구소 소장
 연세대 동문회에서 야유회

제 1회 한인교회 친선 체육대회.

와싱턴주 한인 교역자 친목회 주최로 지난 8월 10일 Woodland park에서 와싱턴주 한인 교역자 친목회(회장 윤삼원 목사) 주최로 8·15 광복절을 맞아 제 1회 한인교회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합에 앞서 씨앤티-타코마 지역 각 교회선수들과 응원단(?)들이 심원을 이룬 가운데 이날 대회장 윤삼원 목사 사회로 간단한 예배를 끝내고 중식을 마친다음 본 대회에 들어갔다.
 토너먼트로 진행된 경기결과 축구 우승 팀에 타코마 한인교회(정 남식 목사 시무), 남자배구에 씨앤티 한인연합교회(윤삼원 목사 시무), 여자 테니스에 씨앤티 한인 형제교회(최 몽걸 목사 시무)에서 차지하였다.

GING OF WELCOME



스포츠케인에서 열리고 있는 Expo '74의 한국관 앞에 달려있는 평화를 상징하는 환영의 징.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양의 신비스런 靜을 두드려 보는 파란눈의 소년. 흥 정선 촬영



교포사회의 「문제 의식」

한 명희

얼마전 아시아 교육자 협회 연례총회가 있어서 중국, 일본, 그리고 바울빈계 사람들과 토론할 기회를 가진 일이 있다. 마침 학부모의 교육문제 참여가 주제여서 교육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시민 학부모들을 접촉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같은 목적으로 모였던 한국학부모들과 비교할 기회가 있어서 느낀점을 몇 자 적어볼까 한다.

다른 아시아계 시민과 한국교포와의 뚜렷한 차이를 느낀것은 Minority로서 「문제 의식」의 정도인것 같다. 그들은 백인다수 지배 사회제도 밑에서 Minority로 교육을 받는다는것과, 산다는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것 같았고 또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아시아인의 공동 노력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깊은 인식을 하고 있는것 같았다. 공립교육 내용에 있어서 아시아 문화재의 빈곤과 백인문화의 교육제도 속에서 자녀들이 받을 자아의식에 끼치고 있는 심리적, 정서적 영향등을 분석하여 어떻게 하면 백인다수 사회에 살면서도 문화의 주체성 및 자아의식을 키우며 아시아의 문화를 교육내용에 반영할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교육정책에 어떻게 참여하고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공동으로 연구하려는 의견이 열렬히 논의되고 있는것을 보았다.

그런데 외란된 말이지만 우리교포를 접해서 얘기할때는 비교적 이러한 문제의식이 결여되고 있는 느낌을 금할수 없었다. 대체적인 의견이 「우리 아이는 문제없이

공부 잘하고 있다», 또는 「개인의 능력이 문제지 Minority는 문제가 아니다」 등의 의견을 가지고, 대다수의 관점을 어떻게 하면 미국인 사회에 빨리 동화하여 개인적으로 빨리 성공하느냐 하는데 있었고 위와 같은 아시아인의 공동적인 문제의식 내지 문제해결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태도를 엿볼수 있었다.

물론 개인적인 해결방법과 전체적인 공동 문제해결방법은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고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만 문제에 접근하는 입장은 교육이나 사회의 역할을 너무 단순하고 간단히 생각하는 데서 오는것이 아닐까 느껴진다.

왜냐하면 다른나라 아시아인들이 이야기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의식하고 있거나 말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의 생활에 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나와 있는 많은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다. 만일 어떤 교포의 한 사람이 「미국에 왔으면 미국인이자 우리말은 뭐가 필요하며 우리 문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미국문화 자체가 다수문화의 공존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미국문화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문화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이 자신을 살리는 때만 가능하다는 역리를 음미하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 교포들이 Minority로서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물론 이유가 없지는 않다.

문제를 문제대로 느끼는 데는 적어도 2~3 세대의 세월이 걸리는데, 이 점에서 우리교포는 대개가 일세들이기 때문에 아직 사회파악이 제대로 돼있지 않다고 해야 하는 점도 있다. 일세는 이세나 삼세에 비하여 자기가 이수해 온 그 사회조직이나 문제를 모르고 따라서 사회내에서의 자기의 위치와 문제를 알기가 쉽지 않다. 대개의 경우 영어 배우기에 분주하면서 세월이 가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대개는 영어를 못하는 자기에게 책임을 지우고 말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자기 문제이고 어디까지나 Minority로서의 문제인지 그 한계에 대하여 예민할 수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이 점에서 2~3세대를 거쳐 이사회를 경험하고 권리를 확보해 오기에 전심해온 중국, 일본등의 아시아계 시민과 우리교포들과의 사이에 문제의식의 차이가 있는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우리교포가 다른 Minority 활동의 역사와 현재의 공동 노력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쉬워진다. 그렇게 하므로써 개인만으로는 해결 안되는 과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고, 미국문화에 있어서 아시아인의 공헌이 가능하리라 보며, 이 역사의 공동 참여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이 땅에 생존할수 있다고 본다.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아시아 학부모님의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 하여야 한다는 이번 년회의 토론도 근본목적으로 여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원고 모집

본 한인회보에 실릴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종 논문을 비롯하여 교포사회의 바람직한 제안, 정부당국에의 제안, 미국 생활에서의 경험등 교포사회에 도움될 글과 시, 수필등을 보내 주시면 심의껏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작품을 보내 주실때나 연락사항이 있으시면 편집을 맡은 박종세 씨에게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Mr. Chong Sye Kwak, Editor
4416 Burke Ave. N.
Seattle, Wa., 98103
Tel. 632-5322

한인회 임원회 소식.

한인회 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 저녁 여섯째; 제 3장 제 16조중 "기부 및 찬구 법회 회장에게서 회의를 갖고 주소록 조급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것에 한 발간, 개원절 기념식 및 회칙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등 한인회 제반문제를 다루었는데 중요한 결의사항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소록을 9월 중에 편집완료하여 10월 중에 발간토록 한다.
2.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에 임원회 대표로 구 법회 현 회장을 파견키로 결정 (선거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음 - 편 집자 주)
3. 태극기 및 성조기를 기증받기로 수락.
4. 한글 타자기 구입결정.
5. IRS에 면세신청 - 계속 추진키로함
6. 개원절 기념식을 10월 5일 토요일에 개최키로 결정. (한인회보 1면에 공고)
7. "아리랑의 밤" 개최일자를 12월 28일(토요일)로 확정 - 장소는 추후 선정키로 함.
8. 회칙개정을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 한다. 날짜; 10월 5일. 장소; 와싱턴대학(한인회보 1면에 공고).
9. 회원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바둑, 장기, 체스(서양장기) 및 탁구대회를 개최키로 함.
10. 회관설치에 관한 제반문제를 임시총회에서 밝히도록 이사회 및 회관설치위원회와 절충한다. 이상.

그런데 임원들이 평소에 여러회원들로부터 전해 듣고 임원회를 거쳐 총회에 회부 하기로 한 회칙 수정안 골자를 보면 첫째; 한인회 목적(제1장 제3조)에 교육 및 자선구호사업을 추가할것 둘째; 한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대동단결을 위해 임원 및 이사의 수를 증가시킨다. 셋째;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피선거권 자격(제 4장 제 21조) "최소 2년 이상 본 회의 의무에 충실한 자"를 "정 회원 중에서 소정의 회비를 선거 4주일전에 납부한 자"로 정한다. 넷째; 회칙 제 6장 제 24조 "보수" 중에 "회장에게는 년 50불을 거마비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삭제. 다섯째; 본회의 회계년도 및 임원의 임기를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골프 클럽 소식

1) 국제무역골프대회
국제무역(김홍식사장)주최 한인골프클럽 주관 제2회 한인골프대회가 지난 8월 24일 Jackson Park Golf Course에서 거행되었는데 씨애틀, 타코마등지에서 사는 한인골프 동호인들이 다수 참석하여 실력을 다툰 결과 Low Net에 박찬요씨, Low Gross에 이현기씨가 각각 우승을 거두었다.

2) 씨애틀 - 포트랜드 친선 골프대회
9월 14일(토요일)에 Jackson Golf Course에서 제 2차 두 도시 친선게임을 가진다.

출생
유 창립씨 - 지난 8월 19일 첫 아드님을 얻고 희색이 만연. 벌써 학부형이 된 기분으로 어깨가 으쓱.
최 명철씨 - 지난 8월 26일 1년전의 복스런 아들 다음으로 "현주"라는 귀여운 따님을 얻으셔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심.

한인회보 구독신청은...

전화 546-6746 <구 법회>
632-5322 <과 중이>

* 매월 발행되는 회보는 무료로 배포하며 주소록은 정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배포함. 정회원자격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함.

아버지 저희들의 교육보험이 있으시나요?

세계에서 제일 크고 이익배당이 많은

프루덴셜보험!

*자동차보험 *건강 보험
*생명 보험 *단체 보험
*저축 보험 *화재 보험
*교육 보험 *사업 보험

싼가격으로

Office: (206) 447-2900 Res: (206) 244-8198

특별 대리인 안 병 용
PHILIP BYUNG-YONG AHN
Special Agent

The Prudential Insurance Co. of America
Prudential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
201 Broad St., Seattle, Wash. 98121
Office: (206) 447-2900 Res: (206) 244-8198

INSURANCE OF ALL KINDS FOR -
CAR • LIFE • FIRE • HOME • BUSINESS
HEALTH • BOAT • BOND • MOTORCYCLE



고대 교우회 피크닉

NEW BOOK

KOREA :

The Third Republic

288 Pages Photographs, \$6.95

韓國
第三共和國
鄭慶朝博士著

NEW KOREA

KOREA TOMORROW

BY
DR. KYUNG CHO CHUNG
THE MACMILLAN CO.
866 3RD AVENUE, NEW YORK



<컬럼> 호 반

友情的 對話

곽 종세

誠實과 正直이 「바보」, 무능과 同義語로 해석되는 우리사회에는 수염만 깎는 면도칼같이 약삭빠른 人間群들은 우리사회에 많지만 장작패고 기동감 만드는 도끼같은 사람은 적다.

한국적 「카인」의 후예는 「탈러」도 「파운드」도 「마르크」도 「엔」도 못된다는 「葉錢」의 신세라형에, 依他心과 비겁을 배워 청바지에 통기타치고 팝송과 고고에 욕구충족을 하는 소위 「靑年文化」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참된 젊은이들은 지금도 미련스런 바보처럼 「스피노자」가 말한 “이 세상이 5분후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진리를 실천하고 있다.

상록수는 꿈을 담은 젊은이의 보임이다. 푸르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심심함이 있고 生命의 자신과 미래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한가한 庭園草가 아니라 野山과 들판에서 누구의 가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일어나서 주위를 푸르게 하는, 사랑을 모르고 바보처럼 미련스런 그 저 투박한 의지를 가진 일꾼들이나 몇 방울의 땀만 흘려도 지워지는 화장된 얼굴이 아니라 나의 祖上이 물려준 얼굴에 긍지를 갖고 스스로 뽐낼수 있는 보금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가꾸어야겠다.

우리나라는 지금 開拓途上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서울을 위시한 몇 개의 도시에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고속도로가 생기고 지하철이 생겼다고 해서 先進國이라는 그룹에 끼인 것 처럼 착각하고 그 열매를 享樂하려는 心思가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번두리 畝民村과 시골 농촌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몇 부락의 富農이 농촌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몇 개의 企業 때문에

고도성장을 말 할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貧困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고 있다. 옛 것을 망각하는 「새마을」이 아니라 옛 것도 아끼면서 심심하고 靑음이 충만한 常綠의 마을을 일시키고 있는 것이다.

「텔마크」나 「이스라엘」은 無生産性에 가까운 國土를 갖고서도 “내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樂園으로 만든다”는 정열에 불타는 靑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豊饒한 遺産을 후손에게 전할수 있었고 세계에 자랑할수 있는 것이다.

大澤에는 소수의 移民群이 맨손으로 上陸하여 未開拓 지대와 싸우면서 오늘 의 번영을 이룩하였고, 美國의 「유타」주는 소금벌판과 소금 湖水와 사막이었으나 얼마 안되는 「몰몬」교도의 移民群이 불과 100년 동안의 피나는 노력으로 미국 어느 주보다 못지않은 번영을 이룩하였다.

우리 3천리 강산은 말로만의 예찬이 아니라 조그만 땅덩어리에 정말 고르게 아름다운 靑과 풍족한 자원이 있는 곳이다. 그라프 線上에서나 數値의 과장이 없어도 좋다. 우리의 예지나 힘은 결코 다 른 民族에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수한 편이다. 하면 되는것이요, 뭉치면 힘이 생기는 것이다. 또, 노력하면 결실을 맺기 마련이다. 백리 길을 가야하는데 십리를 못가서 다 간것 같이 주저앉아 버리면 옷깃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백 메터 선수처럼 그렇게 빠를 필요도 없다. 마라톤 선수보다 競走 선수가 더 어울려도 좋다.

靑음을 이어주는 정열과 용기만 있다면 우리 20년 혹은 50년 후에 하늘에 부끄럽지 않는 얼굴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이웃을, 조국을 위해 헌신해야겠다.

“사는 날까지 그럭저럭 살아가지”하는 「멘탈 리티」가 무엇보다도 破滅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靑음은 세월의 흐름이나 나이테의 굵고 얇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맑고(청신

하고), 밝고(정열적이고), 굵은(의지가 강한) 價值觀을 갖고 역사의 산 증인이 되어 보느냐에 있다.

어제의 잘못과 게으름을 탓할때가 아니다. 내일이 있다고 바를때가 아니다. 바로 이 시각 내가 선 땅에서 노력하고 가꾸는 것이다. 누가 부르길 「꾼」이라도 좋고, 「놈」이라도 좋다. 「바보」라면 더욱 좋다.

수염만 깎는 면도칼 같은 人間群들은 말아도 장작패고 기동감 만드는 도끼같은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한 것이 오늘날의 슬픔이다.

장작패듯 도끼를 써야겠다. 메마른 땅을 갈아서 우리 상록수의 피와 땀을 눈물로 거름을 주어 덮어야겠다. 잡초는 뽑아서 퇴비에 쓰고 심어야 될것은 심고 길러야 할 것은 부지런히 길러야겠다.

이 광수가 그린 상록수는 동춘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까지만 그렸고, 심혼은 들어가서 활동하는 광경을 보여주었고, 이 무명은 들어가 활동하면서도 고생하는 비참한 상채임을 고발했다면 우리 상록수들은 작품 속의 人物로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내일을 이어주는 歷史的인 生活人으로 시 고생한 보람이 풍요를 안겨주는 비전도 보여 주어야겠다.

累年未 民族生活 속에 繼承된 遺産을 도란도란 돌리며 훈터 「BUTTER」값에 팔아도 안되고, 祖上이 남긴 遺物을 外人에게 한 잔 술 값에 넘겨도 안 되겠다.

미국에 왔으면 미국인(美親子息)이 되고 소련에 가면 소련인(好露子息)이 되는 냄새나는 화장은 제발 질색이다.

한인사회에 만연된 「카인 콤플렉스」를 하루빨리 淨化하여 참다운 祖口의 일을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야겠다. 우리의 子孫들에게 비굴과 비겁을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 정

- ◎ Eddie Yoon - 와싱턴주 Attorney General's office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윤 씨는 Pierce County의 Planning Commission의 Legal Advisor로 발령을 받아 타코마로 되돌아왔다.
- ◎ 김 현길(지리학박사) - Florida주 Tampa에 있는 Southern Florida State Univ.의 지리학과 조교수로 취직되어 지난 8월 24일 씨애틀을 출발. 김 박사 내외는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2주예정인 현지에 도착 할 것이라니 여행중 하나님의 가호있기를.
- ◎ 박 남표씨 - 한국에서 자녀들이 왔기에 새 집을 장만하여 이사. 새로 이사한 집 주소는 3310 N. Gove St., Tacoma, Wa. 98407 전화: SK2-9143
- ◎ 안 병용씨 (프렌체셀 보험회사 Special Agent) - 동아일보 씨애틀 지국장 위촉을 받고 지국개설 준비에 분망중이라는 소식.
- ◎ 황 수철씨(고대 교우회장) - 지난 8월 15일 부친상을 입고 급히 고국에 다녀왔다고 함. 무사히 장례식을 마쳤다니 다행. 아무쪼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윤 삼원 목사(와싱턴주 한인교역자회 회장) - 제 1회 교회대항 친선 체육대회를 무사히 마친 윤목사는 지난 8월 22일 L.A.에 가서 새로 교회를 세우고 많은 활동을 시작했다고.

- ◎ 구 법회씨(한인회 회장) - 10년만에 만난 형님을 모시고 지난 9월 7일 로스앤젤스로 가서 2주일동안의 휴가를 보내는 중 한인회보 독자들에게 안부전해달라는 인사 말씀!
- ◎ 김 남씨(동아일보 마주지사장) - 지난 8월 14일 동아일보 지국개설을 위해 씨애틀 방문. 이튿날 스포케인 향발.
- ◎ 박 진자여사(최용길목사부인) - 10년만에 노모께서 위독하시다는 전갈을 받고 3주 예정으로 고국을 방문했던 박여사는 노모의 간호와 한글학교 추진을 위해 문교부로 찾아가 협의하는등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내고 씨애틀에 돌아옴.
- ◎ 김 남길씨 - 와싱턴대학에서 박사(언어학) 과정을 끝마치고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사.
- ◎ 오 법식씨(무역협회 부회장) - 지난 8월 19일 시장조사차 씨애틀 방문.
- ◎ 한 진상군(한 만철박사아들) - 9월 14일 하바드대학으로 유학차 출발. 영광의 길로 이어지길 기대함.

회비 납부자 명단

62.	최 명철	10.00
63.	전 기수	10.00
64.	김 동협	10.00
65.	문 광호	10.00
66.	서 문상	30.00
67.	유 상수	5.00
68.	김 석민	5.00
69.	홍 익선	5.00
70.	박 한진	10.00
71.	Mrs. 정오 Nuhse	5.00
72.	신 동준	10.00
73.	이 덕재	10.00
74.	서 두수	10.00

특별 찬조금

상항 총영사관	100.00
Richard Matherson 씨애틀 명예영사	75.00
김 길량	20.00



419 FIRST AVENUE SOUTH • SEATTLE, WASHINGTON 98104 • (206) 624-4

재봉사 모집

"썬 셋" 운동복 제조회사에서는 공장시설 확장으로 경험있는 한국인 재봉사를 구한다고 한다. 연락하실 분은 아래 주소로.....

SEWING MACHINE OPERATORS

DUE TO EXPANSION, WE HAVE IMMEDIATE OPENINGS FOR POWER SEWING MACHINE OPERATORS. TOP PAY FOR EXPERIENCED PEOPLE. WILL TRAIN INDUSTRIOUS-MINDED INDIVIDUALS. PIECE WORK EARNINGS OFFER A RAPID ACCELERATION OF PAY. STARTING GUARANTEE FOR TRAINERS AT \$2.25 HOUR WITH INCENTIVE GUARANTEE INCREASES. YEAR ROUND EMPLOYMENT. GOOD BUS CONNECTIONS OR INEXPENSIVE PARKING.

APPLY AT: SUNSET SPORTSWEAR, INC.
419 FIST AVENUE SOUTH
4th FLOOR

회비 납부 요망

한인회 재무부에서는 와싱턴주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회비를 납부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회비는 부부 10달러 (단 18세 이상인 독신자는 5달러)이며 양식에 주소 성명 및 금액을 명기하여 회보에 첨부된 봉투에 넣어 우송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회비를 보낼 때는 주소나 「파시오터」를 이용하고 한글은 필히로 동봉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회비를 내신분에게는 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달 발행될 회보에 그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미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인회 재무 집행진 커브
TO: J. H. Kim, Treasurer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1974년도 회비 \$10.00 (독신자는 \$5.00)과 한인회 운영을 위한 찬조금 \$_____, 도합 \$_____을 동봉하였습니다.

성명(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NORTHWEST ORIENT



여행의 상담자

● 최저요금, 친절봉사

● 이민수속 무료봉사

● 국내외 항공표 판매

●매주 특별할인단체 모국방문

★여행상담은

김의여행사



KIM'S TRAVEL SERVICE

Lloyd Bldg. - Room 606
603 Stewart St., Seattle, Wash. 98101

대표: 김창선 { 624-2227
624-2228
RES. 776-7115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6520 Linden Avenue North
Seattle, Washington 98133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919

Dr. & Mrs. Mansop Hahn
4232 N.E. 17th St.
Renton, Wash. 98055